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2. No. 1 (2025) pp.041~056

농학생 대상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 교육 연구: 이중언어 · 이중문화 접근법을 기반으로*

이 효 진 · 원 미 진**
(연세대학교)

Lee, Hyojin & Won, Mijin. 2025. A Study of Education in Korean ‘-i/ga’, ‘-eun/neun’ for Deaf Students: Based on Bilingual and Bicultural Approach.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2*(1), 41-56.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cquisition patterns of the Korean articles ‘i/ga’ and ‘eun/neun’ in relation to their semantic functions among Deaf students, Hear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Chinese Korean learners. Additionally,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are provided regarding effective pedagogical strategies for instructing the articles ‘i/ga’ and ‘eun/neun’ to Deaf stud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overall acquisition patterns of the examined groups vary according to the specific semantic functions. Notably, the Deaf group and the Hearing group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all semantic functions, except for the subject function and the specifying function of the article ‘i/ga.’ Conversely, the Deaf group and the Chinese learners demonstrat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y semantic functions, except for the old information function of the article ‘eun/neu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anguage acquisition profile of Deaf students is more akin to that of Chinese Korean learners than to native Korean speakers. Consequently,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Deaf student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Korean Sign Language, Oral Speech,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ilingual and Bicultural Approach, Deaf Students

---

* 본 논문은 이효진(2024)의 석사 논문을 일부 요약하고 발전시킨 논문이다.
** 주저자: 이효진, 교신저자: 원미진

1. 들어가기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농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고자 2016년『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한국수어를 독립된 하나의 언어로써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결론적으로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이전에도 농인들만의 언어를 인정하고 그들의 의사소통을 하나의 문화로서 수용하고자 하는 이중언어·이중문화(Bilingual & Bicultural, 2Bi) 접근법이 제기되었다(최성규, 2007b; 권순황, 2009 등).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법은 농인의 제1언어를 수어로, 제2언어를 한국어로 인정함으로써 농인의 언어인 수어와 농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농인의 농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농아동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에는 그들의 두 가지 언어인 수어와 문어를 사용하여 공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두 가지 언어 능력을 모두 능통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김영욱, 2004). 미국에서는 이중언어교육 접근법에 따라 농아동에게 수어를 먼저 배우게 하고, 그 후 영어를 제2언어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으며(장진석, 2012), 이전 연구 결과에서도 농아동의 자연 수어와 문어의 언어 능력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Hoffmeister, 1997; Padden & Ramsey, 2000). 따라서 이중언어교육에서 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제1언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구상해야 한다(中島和子, 2012). 청인 아동의 경우 제1언어가 한국어이고, 제2언어나 외국어는 각자의 교육 환경에 따라 선택한다. 다만 농아동의 경우 제1언어와 제2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농아동의 90%는 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먼저 접하지만 청력 손실로 인해 청인 아동과 동일하게 한국어를 제1언어로서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이서진, 2014). 또한 농아동은 한국어가 주류인 사회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닌 제2언어가 된다. 따라서 농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교육 접근법은 제2언어인 한국어의 문어 능력 향상을 통해 한국 사회, 즉 주류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며(최성규, 2007a), 수업의 측면에서는 수어와 문어를 함께 지원하는 교수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Moores & Martin, 2006).

다만 김영욱(2004)에서는 농아동의 이중언어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문자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 제1언어로서의 수어 접근 및 교육의 일관성 문제, 서로 다른 양식 간의 언어 전이 문제, 교실 언어로서의 수어 문제, 이중언어 교사의 부재 및 양성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중언어 · 이중문화 접근법을 적용하여 이중언어교육은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인, 청인, 한국어 학습자를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습득 양상을 살피고, 이중언어 · 이중문화 접근법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농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조사 교육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농인 대상 한국어 조사에 관한 연구로는 송혜경 · 석동일(2006), 김응범(2009), 김용세(2009), 이서진(2014)이 있다. 송혜경 · 석동일(2006)에서는 수어-구화 이중언어 사용 청각장애학생 20명과 구화 사용 청각장애학생 16명을 대상으로 문장 만들기 과제를 통한 격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격조사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수어-구화 사용 집단보다 구화 사용 집단이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다른 두 언어를 사용하는 수어-구화 사용 집단이 언어 규칙에 있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응범(2009)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중학생 56명을 대상으로 현장 학습 일지나 일기 등의 쓰기 과제를 통해 문장 오류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 어미, 단어와 구, 어순, 사동과 피동, 시제 등에서 오류가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오류의 원인을 한국어 문법과 한국수어 문법이 다르고 한글이 한국수어가 아닌 한국어를 적는 문자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용세(2009)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은 청소년 13명과 건청 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쓰기에서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청 청소년이 인공와우 이식 청소년보다 정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조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사 오류 유형에 있어서는 탈락 오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김용세(2009)는 두 청소년 집단의 차이가 아동기 때부터 조사 사용의 능력에서 격차가 나타난 것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서진(2014)은 농인 대학생 20명과 건청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보고 쓰기 과제를 통해 나타나는 문법

오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농인을 동시적 이중언어로서의 수어사용자(8명)와 순차적 이중언어로서의 수어사용자(12명)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전자는 제1언어가 한국수어, 제2언어가 한국어인 농인을 의미하고 후자는 아동기 때 한국어 구화 교육을 통해 제1언어를 한국어로 사용하고, 대학생 이후 수어를 배운 농인(구화인)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조사 오류에서 모든 농인 집단, 즉 농인과 구화인 집단 모두 청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화인 집단이 조사 오류에서 좀 더 낮은 오류율을 보임을 밝혔다. 이서진(2014)은 청인 집단과 차이를 보인 이유가 수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구화인 집단의 경우 일반학교에서 구화를 사용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낮은 오류를 범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서진(2014)은 모든 농인 집단의 조사 오류 양상이 한국어 학습자와 유사함을 밝히며, 다른 외국어와 한국어의 대조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듯 수어와 한국어의 대조 분석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농인의 언어 사용 환경에 따라 한국어 조사 사용 및 오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위 연구들은 농인의 조사 오류의 원인이 농인의 언어 사용 환경의 차이와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언어적 차이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서진(2014)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농인의 조사 오류 유형은 한국어 학습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농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조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청인 집단과는 구별된 농인 집단만의 언어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도 함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인 중·고등학생과 청인 중·고동학생, 그리고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적 기능

2.1. 조사 '이/가', '은/는'의 정의

『한국어 표준 문법』에 따르면 주어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체언 및 체언 자격을 갖는 요소에 주격조사가 결합해 이루어진다. 주격조사로는 '이/가', '께서', '에서', '이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가'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주어에 주격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도 결

합할 수 있는데, 보조사는 결합하는 명사구에 추가적인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조사이다. 보조사로는 '만', '도', '은/는', '까지', '(이)나' 등이 있는데, 이 중 대조, 화제 제시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보조사 '은/는'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은/는'은 체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문장성분에 비교적 자유롭게 연결 가능하지만 문두의 주어 자리에 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조사이기 때문이다(오아림, 2021, p. 31).

보조사 '은/는'은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도 주격조사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 표준 문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주어 자리에는 주로 '은/는', '이/가'가 함께 쓰인다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도 보조사 '은/는'을 주어를 나타내는 격 표지로 받아들이는 오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도 조사 '은/는', '이/가'를 초급에서 먼저 접하나 한국어 숙련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문법 항목 중 하나이다(수해붕,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격조사 '이/가'와 대응하는 보조사 '은/는'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2.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적 기능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적 기능을 분석한 연구로는 남기심(1972), 임홍빈(1998), 채완(1976), 고석주(2001), 김미형(2011) 등이 있다. 우선 조사 '이/가'의 의미적 기능은 크게 '배타성'을 지지하는 연구(남기심, 1972; 임홍빈, 1998 등)와 '선택적 지정'을 지지하는 연구(고석주, 2001; 김미형, 2011 등)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남기심(1972)은 '영희가 일등이다.', '백두산이 제일 높다.' 문장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희', 다른 산이 아니라 '백두산'을 나타내기 위해 조사 '이/가'가 쓰였기 때문에 조사 '이/가'가 배타적 지칭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임홍빈(1998)에서도 조사 '이/가'를 배타적 대립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주어에 대응하는 명사, 또는 그런 개념인 '주사'와 주사에 결합되어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인 '빈사' 사이의 의미론적, 논리적 관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임홍빈(1998)은 '이/가' 구문은 주사(A)와 빈사(B) 사이에 합동 관계(A=B)가 성립되는 비정언문이라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랑이 죄악이다.' 문장에서 사랑(A)과 죄악(B)이 합동의 관계를 가져 조사 '이/가'가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A1이 B와 합동의 관계를 가질 때 다른 A2, A3 등과는 배타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조사 '이/가'는 배타적 대립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반면 고석주(2001)는 배타성의 의미가 조사 '이/가'와 관계없이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고, 조사 '이/가'가 쓰인 명사구가 배타성의 의미로 항상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이/가'는 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특히 '철수가 먼저 도착했다.' 문장에서처럼 '가장', '먼저' 등과 같이 비교되는 다른 대상이 있음을 함축하는 표현에서는 반드시 조사 '이/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조사 '이/가'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에 대한 지정인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김미형(2011)에서도 조사 '이/가'가 술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주어 자매항을 선택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하는 선택적 지정의 의미를 가지게 만든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조사 '은/는'의 의미적 기능은 '주제'(남기심, 1972; 채완, 1976 등)와 '대조'(남기심, 1972; 채완, 1976; 임홍빈, 1998; 김미형, 2011 등)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남기심(1972)은 조사 '은/는'이 주제 제시와 대조의 기능을 모두 한다고 보았는데,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문장에서 '고래는'은 주제이고, '포유동물이다'는 앞선 주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였다. 또한 '철수는 이 책을 읽었다.' 문장은 '그러나 영호는 읽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대조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채완(1976)도 조사 '은/는'이 주제와 대조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는데, 두 기능이 나타나는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산이 많다.' 문장에서 조사 '은/는'은 주제를 나타내는데, '산이 한국에는 많다.' 문장에서는 조사 '은/는'이 문장 중간에 쓰여 주제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임홍빈(1998)은 '은/는' 구문을 주사(A)와 빈사(B) 사이에 귀속 관계가 성립되는 정언문이라고 하였는데, A1이 B와 귀속의 관계를 가질 때 A1에 선택되지 않은 다른 A2, A3 등과는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 '은/는'은 대조적 대립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미형(2011)에서도 조사 '은/는'은 조사 '이/가'와 반대로 주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술어 자매항을 선택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는 선택된 술어에 대응하여 선택되지 않은 술어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 두 술어가 대립적 위치에 있을 때 대조성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 '이/가'의 의미적 기능을 '주어, 지정, 신정보'로 구분하고 조사 '은/는'의 의미적 기능을 '주제, 대조, 구정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적 기능

연구자	'이/가'	'은/는'
남기심(1972)	배타적 지칭	주제 제시, 대조
채완(1976)	-	주제, 대조
임홍빈(1998)	배타적 대립	대조적 대립
고석주(2001)	선택 지정	-
김미형(2011)	선택적 지정	대조성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농인 중 · 고등학생(이하 농인), 청인 중 · 고등학생(이하 청인),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이하 중국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래 예문에서처럼 한국어는 격조사를 통해 문장성분을 나타내지만 한국수어와 중국어는 주로 어순을 통해 문장성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수어와 중국어는 모두 격조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격을 실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 간의 한국어 조사 습득 양상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1) 한국어
  a.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b. 동생이 밥을 먹어요.

(2) 한국수어
  {눈썹올리기}
  {눈크게뜨기}
  {입술동그랗게만들기}
  설명의문표지
  a. [이것] [그림] [무엇]
  또는 [그림] [이것] [무엇]
  b. [여동생] [먹다]

(3) 중국어

a. 这(이것)是(이다)什么(무슨)画(그림)?

b. 妹妹(여동생)在(-고 있다)吃(먹다)饭(밥)。

본 연구 참여자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집단	인원
농인[1]	16
청인	22
중국인 학습자	24
총 인원	62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ity Judgment Test, GJT)를 통해 세 집단의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습득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자료 수집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구글폼(Google Form) 형식으로 실행하였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글폼은 각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입력란과 빈칸 채우기 과제(Cloze Test)로 구성하였다. 또한 빈칸 채우기 과제는 모두 객관식으로, 15개의 실험 문항과 9개의 혼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2] 문항은 그림과 대화문을 함께 제시하며 연구 참여자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대 농인, 청인, 중국인 학습자 각 2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실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후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개의 혼란 문항 중 5개 이하를 맞힌 연구 참여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인 집단 15명, 청인 집단 22명,

1) 기존 연구에서는 농인 집단은 농인 8명과 구화인 8명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2) 기존 연구에서는 단일주어문과 주격중출문에서의 조사 '이/가', '은/는'의 습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12개의 주격중출문 문항도 함께 포함하여 총 36문항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중국인 학습자 1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조사 '이/가', '은/는' 습득 양상

4.1. 조사 전체 습득 양상

농인, 청인,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각 문항의 정답률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3]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집단	표본 수(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분석
전체	농인(a)	15	13.27	2.96	14.167***	.000	a, b<c
	중국인(b)	19	14.21	1.93			
	청인(c)	22	16.59	.96			
조사 '이/가'	농인(a)	15	7.00	1.60	5.019*	.010	a, b<c
	중국인(b)	19	7.11	1.29			
	청인(c)	22	8.09	.68			
조사 '은/는'	농인(a)	15	6.27	1.87	14.596***	.000	a, b<c
	중국인(b)	19	7.11	1.29			
	청인(c)	22	8.50	.60			

*p<.05 **p<.01 ***p<.001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에 따라 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전체 문항(F=14.167, p<.001), 조사 '이/가' 문항(F=5.019, p<.05), 조사 '은/는' 문항(F=14.596, p<.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각 문항의 습득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에 대해 사후분석(Duncan'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청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농인 집단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시에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점수가 약간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두 집단은 같은 경향을 드러낸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를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정도에 있어서 청인 집단에 비해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인 집단과 농인 집단이 동일한 연령대이고,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국어 교육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농인 집단이 청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지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농인 집단과 청인 집단의 언어 습득 과정이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인을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로 바라볼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4.2. 조사 '이/가' 습득 양상

본 절에서는 조사 '이/가' 습득 양상을 조사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이/가'의 의미적 기능은 주어 기능, 지정 기능, 신정보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4] 조사 '이/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주어 기능	농인(a)	15	1.93	.88	1.288	.284	-
	중국인(b)	19	1.95	.78			
	청인(c)	22	2.27	.63			
지정 기능	농인(a)	15	2.60	.63	2.637	.081	-
	중국인(b)	19	2.53	.51			
	청인(c)	22	2.86	.35			
신정보 기능	농인(a)	15	2.47	.74	3.593*	.034	a, b<c
	중국인(b)	19	2.63	.68			
	청인(c)	22	2.95	.21			

*p<.05 **p<.01 ***p<.001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조사 '이/가'의 의미적 기능 중 신정보 기능(F=3.593, p<.05)에서만 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인 집단의 평균 점수가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 3]의 결과와 동일하며,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점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두 집단은 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인 집단과는 차이를 보이고,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농인 집단의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주어 기능과 지정 기능에서는 집단 간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주어 기능에서의 평균 점수는 청인 집단, 중국인 학습자 집단, 농인 집단 순으로 높은 반면 지정 기능에서의 평균 점수는 청인 집단, 농인 집단, 중국인 학습자 집단 순으로 높았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농인 집단의 평균 점수의 순서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조사 '은/는' 습득 양상

본 절에서는 조사 '은/는' 습득 양상을 조사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은/는'의 의미적 기능은 주제 기능, 대조 기능, 구정보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5] 조사 '은/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
주제 기능	농인(a)	15	2.73	.46	3.332*	.043	a, b<c
	중국인(b)	19	2.79	.42			
	청인(c)	22	3.00	.00			
대조 기능	농인(a)	15	1.33	.98	11.549***	.000	a, b<c
	중국인(b)	19	1.63	.90			
	청인(c)	22	2.55	.60			
구정보 기능	농인(a)	15	2.20	1.08	6.290**	.004	a<b, c
	중국인(b)	19	2.68	.48			
	청인(c)	22	2.95	.21			

*p<.05 **p<.01 ***p<.001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조사 '은/는'의 모든 의미적 기능, 즉 주제 기능(F=3.332, p<.05), 대조 기능(F=11.549, p<.001), 구정보 기능(F=6.290, p<.01)에

서 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사 '이/가' 중 신정보 기능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과 비교해볼 만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 '은/는'의 주제 기능과 대조 기능에서 청인 집단의 평균 점수가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표 3]과 [표 4]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 값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사 '은/는'의 구정보 기능에서는 농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청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중국인 학습자 집단보다 농인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듯 농인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5. 농학생 대상 조사 '이/가', '은/는' 교육 방향성 제언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 결과에 따라 농인 집단, 중국인 학습자 집단, 청인 집단이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다른 습득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농인 집단과 청인 집단은 조사 '이/가'의 주어 기능과 지정 기능을 제외한 다른 의미적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조사 '은/는'의 구정보 기능을 제외한 다른 의미적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농인 집단은 청인 집단과는 상이한 언어 습득 과정을 지니고 있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는 비교적 유사한 습득 과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인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는 한국어 학습자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농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은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조사 '이/가'와 조사 '은/는'의 습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조사 '이/가'와 조사 '은/는'은 주어 자리에서 쓰이는 조사로서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집단별로 다른 습득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 조사를 학습할 때 의미적 기능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조사 교육은 조사의 의미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수어와 중국어는 조사를 통해 문장 성분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한국어 조사의 이형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어 조사 교육은 형태 중심 교수법(Focus on forms)이나 의미 중심 교수법(Focus on meaning)이 아닌, 형태와 의미에 모두 집중하는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조사 '이/가'와 조사 '은/는'의 대부분의 의미적 기능에서 유사한 습득 양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조사 '은/는'의 구정보 기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와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조사 교육은 각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하며, 본고는 이를 이중언어 · 이중문화 접근법에 따라 적용해보고자 한다.

첫째, 성공적인 농인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해서는 농인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적 기반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인의 이중언어교육 연구를 진행한 김영욱(2004), 김미은 · 서도원 · 윤병천(2007), 장진석(2012) 등에서는 제1언어로서의 수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하고 있었으며, 특히 김미은 · 서도원 · 윤병천(2007)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이 농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농학생에게 제1언어인 수어 통역을 지원할 때 제2언어인 한국어(문어) 습득과 연결된 학업 성취가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어 조사 교육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수어 간의 대조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인의 이중언어교육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과는 달리 제1언어와 제2언어가 서로 양식(mode)이 다른 언어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는 음성언어에 기반을 둔 문자언어인 반면 한국수어는 시각언어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 환경에서는 목표어인 한국어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교수하는 것에 반해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 환경에서는 농인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제1언어인 수어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교수하여야 한다. 또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 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농인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교육에서는 형태 초점 교수법을 중심으로 읽기와 쓰기 영역에 집중한 한국어 조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문화는 매우 긴밀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농인의 언어뿐만 아니라 농문화도 고려한 이중언어 · 이중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측면, 특히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

행하였지만 언어와 문화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임은 당연하다. 농아동을 위한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법에 대해 연구한 최성규(2007b)에서는 농문화와 청인 문화의 차이는 언어적 차이보다 선행된다고 언급하였는데, 문화적 차이는 경험의 차이로 나타나고, 이는 사고와 언어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농학생의 성공적인 이중언어교육을 위해서는 이중문화교육이 필수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고석주 (2001). 한국어 조사의 연구: '가'와 '를'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권순황 (2009). 농인 가족과의 생활경험이 농학생의 수화 사용 및 통합교육 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권 1호, 23~37.

김미은·서도원·윤병천 (2007). 농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제반요소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권 3호, 143~164.

김미형 (2011).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본 전제와 기능 분석. 「담화와 인지」, 18권 3호, 23~64.

김영욱 (2004). 농학생의 이중언어 능통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성공 조건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39권 2호, 31~59.

김용세 (2009). 인공와우 이식 청소년과 건청 청소년의 쓰기에서의 조사 사용 비교.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응범 (2009).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장 지도 효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0권 2호, 231~256.

남기심 (1972). 주제어와 주어. 「어문학」, 26권, 128~131.

송혜경·석동일 (2006).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양식 유형에 따른 격조사 사용 비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권 3호, 129~150.

수해붕 (2015). 중국어화자를 위한 주어위치에 쓰인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교육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오아림 (2021).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 습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유현경 · 한재영 · 김홍범 · 이정택 · 김성규 · 강현화 · 구본관 · 이병규 · 황화상 · 이진호 (2021).「한국어 표준 문법」. 서울 : 집문당.

이서진 (2014). 이중언어로써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쓰기에 나타난 문법오류특성.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임홍빈 (1998).「국어 문법의 심층」. 파주 : 태학사.

장진석 (2012).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체제모형 개발 탐색,「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권 1호, 193～212.

채완 (1976). 조사 '는'의 의미.「국어학」, 4권, 93～112.

최성규 (2007a). 우리나라 청각장애아동의 문해능력 신장을 위한 이중언어접근법의 모형개발.「특수교육연구」, 14권 1호, 111～141.

최성규 (2007b).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이중문화와 이중언어 접근법에 대한 Vygotsky의 시각과 공헌.「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권 4호, 633～653.

Hoffmeister, R., de Villiers, P., Engen, E., & Topol, D. (1997). English reading achievement and ASL skills in deaf student. In Elizabeth Hughes, Mary Hughes, & Annabel Greenhill (Eds.), *Proceedings of the 21st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Somerville, MA: Cascadilla Press.

Moores, D. F., & Martin, D. S. (2006). *Deaf learners: Developments in curriculum and instruc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Padden, C., & Ramsey, C. (2000). American Sign Language and reading ability in deaf children. In Charlene Chamberlain, Jill P. Morford, & Rachel I. Mayberry (Eds.), *Language acquisition by eye,* (pp. 165-189).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中島和子 (2012). 이미숙 외 4인 공역.「이중 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캐나다 · 미국 · 일본의 연구와 실천」서울 : 한글파크.

이효진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전 화: (02) 2123-2265
이메일: gywlsdj0704@yonsei.ac.kr

원미진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화: (02) 2123-2268
이메일: mwon@yonsei.ac.kr

논문접수: 2025년 5월 15일
수정완료: 2025년 5월 15일
게재확정: 2025년 6월 9일